“한국 근현대에 가려진 호남 화단 위상 재정립”

전남대 김허경 박사 ‘호남 근현대미술사’ 펴내

호남 화단은 소치-미산-의재-남농으로 화맥 이어와
생존 작가·유족 협조 구하고 연도·탄생일 등 재확인
추상회화 시조 주경 화백 사진자료 처음 실어 감회 남달라

“책을 쓰면서 호남 근현대 서양화단의 흔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오지호의 인상주의, 강용운과 양수아의 앵포르멜 작품, 1960년대 구상 대 추상 논쟁, 1980년 민중미술 등 호남 작가들의 활동은 의미 있는 발자취라 할 수 있지요.”

호남인들의 심성 기저에는 ‘의로움’이 자리한다. 특히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는 인간 소외, 실존의 문제를 깊이 자각했으며 80년 5월을 거치면서는 인권, 민주 문제로 확장됐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은 자연스럽게 예술적 토대를 넘어 오늘날 호남 화단의 위상을 견인하는 기폭제가 됐다.

호남 근현대미술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발간됐다. 주인공은 전남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허경 박사. 최근 김 박사는 한국근현대 미술사 속의 호남 근현대미술를 오늘의 시점에서 재해석한 ‘호남 근현대미술사’(심미안)를 펴냈다.

기자는 최근 김허경 박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무덥던 지난 여름, 출간을 위해 4~5차례나 교정을 봤다는 김 박사는 밀린 숙제를 끝낸 학생처럼 홀가분한 모습이었다. 김 박사는 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첫 인상에서도 그림에 대한 심미적인 감각과 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세밀함이 얼핏 느껴졌다.

“지난 2007년 5월 전남대에서 ‘호남 미술의 재해석’이라는 주제 아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서양화, 조각, 한국화로 나눠 연구자들이 각자 발제를 했지요. 저는 당시에 ‘남도 서양화의 전개와 의미’에 대해 발표를 했구요.”

김 박사는 당시에 호남 화단의 근현대미술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한국 근현대 미술이 중앙화단을 중심으로 연구와 비평, 집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의문과 반성이었다.

“호남 화단은 소치(小痴) 허유 이래 남종문인화의 전통과 함께 예향의 뿌리를 내렸어요. 이후 약 100년 동안 미산(米山), 의재(毅齋), 남농(南農)으로 화맥을 이어왔죠. 특히 서양화가 도입된 후 인상주의를 한국의 자연에 투과시킨 오지호의 토착화 도정은 남화의 바탕에 서양의 화법을 접목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 박사의 말에서 남도 미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읽혀진다. 사실 어떤 주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를 책으로 묶어내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특히나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체계화가 되지 않은 분야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허경씨

참고 논문이나 문헌에 기초적인 부분이 누락되거나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그렇다. “연도나 작가 탄생 일 등이 다르게 표기돼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일일이 재확인을 해야 했다”는 말에서 저간의 작업이 어떠했는지 짐작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물음에 김 박사는 “생존 작가나 유족을 만나 직접 협조를 구했다”며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책 출간에 대한 책임감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집필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도 있다. 한국 추상회화의 시조라 일컫는 ‘파란’(1923)을 제작한 주경 화백 유족과의 만남이 그렇다.

“지난 2006년 주경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경展’에서 1930년 전후 작품 3점의 사진자료가 공개돼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책을 통대 당시 공개된 사진 자료를 처음으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줘 감회가 남다르답니다.”

김 박사는 광주 출신 지성렬의 생애도 이번 책에 담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1934년 동아일보에 ‘신춘(新春)을 장식(裝飾)한 지군(池君)의 개인전’이라는 신문기사를 통해 당시 그림과 활동 등 단편적인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가외의 소득이다.

김 박사는 현재 전남대에서 강의를 하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강의 외에도 미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지난 2011년에는 전남대 의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채용돼 수장고, 전시실, 유물대장 등 개관업부를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문화자원 콘텐츠를 구축하고 목록화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특히 2016년에는 국제여성미술제 전시 큐레이터를 맡아 ‘여성미술의 사회적 메시지-척후병: 변화의 전망’을 기획했던 일은 기억에 남는다.

“학문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버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급변하는 현대미술의 현장에서 원활한 이해와 올바른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불가피하지요. 앞으로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역사성, 장소성을 뿌리삼아 문화 예술이 우리 삶속에 발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첼리스트 김기용

피아니스트 한네롯 바이겔트

가을로 물든 남도서 첼로·피아노 선율 만나다

광주 출신 첼리스트 김기용
독일 피아니스트 바이겔트
광주·전남서 5차례 듀오 공연

가을로 물든 남도 곳곳에서 첼로와 피아노의 깊은 선율을 만난다.

첼리스트 김기용(37)이 1일 여수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 독일 피아니스트 한네롯 바이겔트와 듀오 무대를 연다.

광주 출신인 김기용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상무역에서 바흐 탄생을 기념하는 자선공연 ‘지하철 안의 바흐’에 참여했다.

김씨는 이번 무대에서 스위스 루체른 첼로 페스티벌 단골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네롯 바이겔트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교수와 호흡을 맞춘다. 빈 국립음대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만점 졸업한 바이겔트는 김씨와 독일 유학 시절 인연을 맺어 그의 1, 2집 앨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들은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첼로 소나타 a단조’와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을에 쓰는 편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순회는 1일 낮 12시 30분 여수 애양병원 특설무대를 시작으로 4일 강진아트홀(오후 7시), 5일 순천대 우석홀(오후 시), 7일 광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오후 7시)을 거친 뒤 9일 장성 백양사(오후 6시 30분)에서 공연을 마무리한다.

전남대를 거쳐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씨는 나투어뮤직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7일 공연 전석 2만원(그 외 공연 무료). 문의 062-955-866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대에 현대사회 이데올로기 투영시킨 ‘소통의 온도’

광주현대무용단, 3일 공연

광주현대무용단이 오는 3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 ‘소통의 온도’를 연다.

올해로 창단 28주년을 맞은 광주현대무용단은 지역 특색에 맞는 창작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전국무용제에서 3차례에 걸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소통의 온도’로 프롤로그, 1장 쉼표(,), 2장 느낌표(!), 3장 마침표(.), 에필로그에 걸쳐 무용 장르 간의 어우러짐, 대치, 충돌 등 다양한 구성을 선보인다. 무용단은 무대에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투영시킴과 동시에 관객과 순수무용 사이의 벽을 허물고자 했다.

광주현대무용단 ‘소통의 온도’ 연습 모습.

광주문화재단의 2018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임지형씨가 안무감독으로 나섰고 조선대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유라씨가 안무를 맡았다. 여차현, 김현재, 김진아, 김유진, 김재식씨 등이 무대를 꾸미고 박영상, 심재호, 양승관씨가 객원 출연한다. 전석 무료. 문의 062-230-742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원행 스님(65·사진)이 선출됐다. 지난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선거에서 원행 스님이 당선됐다. 선거인단 315명 중 235명의 지지(전체 선거인단 73.8%)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당초 4파전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26일 혜총 스님, 정우스님, 일면 스님 등 세 후보가 동반 사퇴하면서 원행 스님 단독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는 2일 인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왕자의 선물’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광주문화재단 3·6·9·13일
‘가을맞이 이벤트’ 진행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플랫폼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가을맞이 이벤트’는 오는 3일, 6일, 9일, 13일 4일간(공휴일/토요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홀로그램극장과 어린왕자 테마존에서 펼쳐진다.

홀로그램극장에서는 이벤트 기간 동안 홀로그램감성인형극 ‘어린왕자의 선물’을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이들에게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도서를 선물로 증정한다. 3인~5인 가족에게 1권씩 증정하며 50가족 선착순. ‘어린왕자의 선물’은 공휴일·토요일 오후1시10분·3시30분·4시20분(평일은 오후3시30분·4시20분·5시10분)에 상영된다. 티켓은 인터파크·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또는 현장 매표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어린왕자 테마존에서는 어린왕자 옷과 멋진 왕관을 걸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즉석에서 사진인화와 예쁜 액자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추가하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 매표소에서 5분~10분 뒤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3월 문을 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지역 미디어아트 체험학습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어린이, 청소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문의 062-670-7455. /박성천 기자 skypark@